

말 없는 말씀 (不言之教)



박영호 (다석사상연구회 회장)

예수보다 5백여 년 먼저 온 공자(孔子)는 74년을 살고 세상을 떠났다. 공자는 자신의 일생을 여섯 고비로 나눠 말하였다. 15살에 배울 생각을 하였고, 20살에 사람답게 살 뜻을 세우고, 40살에는 헤매지 않게 되고, 50살에는 한얼님을 알게 되고, 60살에는 한얼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알아듣게 되고, 70살에는 마음 놓고 살아도 수성(獸性)에 휘둘리는 일이 없었다고 하였다.

공자는 15살에 배울 생각을 하였다지만 교육제도가 서 있지 않은 때라 공자가 배운 스승의 이름도 없고 뚜렷한 졸업증서를 받았다는 말도 없다. 이것은 석가나 예수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가피라성 성주의 아들인 고타마(석가)는 초빙한 개인 가정교사에게 글공부를 하였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을 뿐이다. 예수도 별로 뚜렷이 배운 일이 없었는지 사람들로 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 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한얼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가르침이 한얼님께로서 왔는지 내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 7: 15~17) 이 도추시대(道樞, axial age) 성자들의 시대의 또 하나의 특색이 있다면 종교와 교육의 구별이 없었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종교와 교육의 구별이 뚜렷하게 나뉘었다. 이것이 잘된 점도 있지만 못된 점도 있다.

교육자이면서도 종교의 심층에까지 이른 바 있는 류달영과 류영모의 생각을 펼쳐본다.

“종교는 곧 교육이다. 교육도 결국은 종교에까지 가야한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교육과 종교를 법률로 분리시킨 것은 종교 중독자들의 협량(狹量)에 의한 큰 피해를 막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참 종교와 참교육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로 통하는 수밖에 없다고 나는 믿는다. 한얼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참교육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종

교 의식(儀式)이 곧 종교가 아니라 진리정신인 종교심이 참 종교인 것이다. 종교가 진리정신에 멀어질수록 의식(儀式)은 반비례로 복잡 찬란해지는 것이다. 종교는 진리정신이 살아있는 마음 안에서 아름답고 향기롭게 꽃이 핀다. 예수의 진리정신인 말씀은 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한얼님은 착한 마음이 간직한 열나의 아들을 기뻐하신다. 살아있는 불경과 성경을 읽으려면 우선 대자연을 통해서 한얼님의 뜻을 읽을 것이다. 오늘 의 종교는 방부제를 넣은 곤충상자를 어루만지는 것과 별로 다름이 없다. 대자연은 한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있는 한얼님의 굴월이다. 자연은 거대하고 심오한 경전이요 또한 위대한 인생의 스승이다. 스승이 별로 없었던 예수, 공자, 석가, 노자, 소크라테스도 실상은 대자연에서 진리의 산 말씀을 풍부하게 먹고 마시고 자라난 분들이다.”

(류달영, 『종교와 교육의 의미』, 『행복의 발견』)

“글이라는 것은 절대자 한얼님에게로 통한다. 그(한얼님)를 그리워하여 그리는 글이라야 한다. 제나(自我, ego)의 짐승 성질을 태워버리고 한얼님 아버지의 뜻에 있대어 놓고 자꾸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 무엇으로 한얼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얼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때 그 글은 한얼님 아버지가 그리울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배워야 한다. 나로서는 오늘날의 학교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기독교 학교조차 학교 구실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얼님 아버지를 그리는 글은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는 글은 글이라고 할 수 없다. 한얼님 아들인 열나를 깨우치는 온전한 글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 교육이란 것은 진리 되시는 **한얼님을** 찾아 가르치자는 것이다. 그런데 **얼토당토 하지** 않게 입신출세(立身出世)를 위해 **교육敎育**이 교만을 키우는 교육(驕育)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학교를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교만만 **늘어나고** 도둑질만 잘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이라면 **차라리** 교육을 그만두자는 교육폐지론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류영모, 『다산아름』)

공자(孔子)가 20살에 뜻을 세웠다는 것은 **나도** 남들처럼 살아 보겠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참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을 때는 50살에 **한얼님이** 주신 사명(使命)을 깨달았을 때일 것이다. **세상 사** 람들 모두가 나를 몰라주더라도 나를 **알아준** 이는 한얼님이시라 한얼님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 탓도** 않는다[不怨天不尤人]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한** 얼님이 주신 사명은 제나(ego)로 죽고 **열나를 깨** 달아 한얼님께로 돌아가 한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다. 공자의 천명(天命)은 한얼님이 주신 **생명인 열** 나로 알아야 한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천명을** 모르면 군자(君子)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예수가 말한 한얼님 아들로 **보아야** 한다. 공자가 말한 극기(克己)는 제나[自我]를 **죽여** 버리는 것이다.

류영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생사(生死)의 제나(自我, ego)는 **멸망의 물질** 이라 더럽다. 그러므로 제나(自我, ego)는 **깨-끝** (覺終)이 해야 영원한 생명인 열나에 이른다. **제** 나의 삶은 꿈이라 깨야 하고 제나의 삶은 **거짓** 이라 깨뜨려 끝내야 한다.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면**

본래 청정(淸淨)한 생명이 드러난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엘나(靈我)이다. 엘나는 한얼님의 생명이라 나와 나가 없다. 엘나는 영원한 생명이라 늘 현재만 있을 뿐이다. 후손 끊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진리가 끊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짐승은 종족을 잇는 것이 삶의 목적이지만 사람은 진리를 잇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예수와 석가는 자식을 기르려 하지 않고 제자들만을 길렀다. 진리정신(엘나)을 이어 주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제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정신을 이어나가려고 해야지 후손 끊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후손이 끊어진 사람은 극히 적다. 그러나 진리정신이 끊어진 사람은 아주 많다. 이 나라의 단군할아버지의 정신을 잇달 사람은 삼국시대에도 별반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단군할아버지의 정신이 끊어지는 것을 걱정한 사람이 없다. 이 사회는 참으로 철학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류영모, 『다석어록』)

엘나의 깨달음을 얻은 20세기에 톨스토이, 마하트마 간디, 류영모는 50살이 되어 깨달아 가정을 이루어 처자식이 이미 있었으며, 헨리 데이빗 소로우를 사랑하는 여인의 어머니가 딸 혼사를 반대하여 가정을 이루지 못한 채 45살에 세상을 떠났다.

가장 모범적으로 가정을 이루지 않고 엘나를 깨달아 한얼님 아들 노릇을 한 이는 예수이고, 석가는 엘나를 깨닫기 전에 아내(야쇼다라)와 외아들(라훌라)이 있었다. 이들도 뒤에 출가하여 석가의 제자가 되었다. 비교적 젊은 나이(35살)에 엘나를

깨달았고 또한 많은 제자를 둔 석가는 뜻밖의 소리를 하였다. 어느 때에 석가붓다가 땅의 흙을 조금 쥐어 엄지손가락 손톱 위에 올려놓고서 “손톱 위에 올려진 이 흙이 많은가, 저 넓은 땅의 흙이 많은가?”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다. 여러 제자 가운데 카샤파(가섭)가 나서 대답하기를 “스승님이시여, 여러 넓은 땅에 비기면 손톱 위에 흙은 있다고 말할 거리도 못됩니다.” 그러자 석가는 “카샤파여, 그런데 땅의 아버지가 낳아준 제나(몸나)로 사는 이는 땅의 흙처럼 많은데 니르바나님이 주시는 엘나로 사는 이는 손톱 위의 흙처럼 아주 적다. 제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멸망의 생명인데 엘나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였다. (『대승열반경』, 박영호 정리)

예수의 생각도 석가와 다름없이 경고적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길이 좁아 찾는 이가 적다.”

(마태 7:13~14)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한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인 엘나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그런데 좁은 길이라 그리로 가는 이는 힘들다고 가는 이가 아주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을 참고 그 길로 나아가면 한얼님께로 나아가는 기쁨의 영생의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쉬워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넓은 길로 가면 마지막은 허망한 멸망 생명으로 끝나게 될 뿐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을 좇겠다는 크리스천들도 이 예수의 말씀은 바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다.

석가가 자신의 몸나의 아버지를 보고 나는 사카(석가)죽이 아니라고 한 것은, 짐승인 몸나가 참나가 아니요 니르바나님이 주신 열나(Dharma)가 참나임을 선언한 것이다. 예수가 한얼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라고 한 것도, 자신의 몸나는 거짓나요 한얼님이 주신 열나가 참나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것을 똑바로 알아들어야 예수, 석가의 가르침을 바로 알아듣는 것이다. 류달영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내 자신의 몸나(제나)가 짐승임을 알게 됨은 종교의 출발이다. 내 맘속에 열나가 한얼님과 하나임을 아는 것이 종교의 완성이다. 인생 길은 내 몸이 짐승임을 알고서 비통에 빠지기도 하고, 내 맘의 열나가 한얼님임을 깨닫고 황홀해지기도 한다. 사람이 내 맘속의 열나의 신성(神性)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비참함과 절망의 인생은 없다고 하겠다.”

(류달영, 『종교와 교육의 의미』)

류영모는 열나(참나)를 한얼님의 씨(아들)라고 말하였다.

“묵은 떡 덩어리에 낀 곰팡이 한 알갱이 같은 나라는 존재가 몸나(제나)이다. 그런데 내 맘속에 으뜸(우주정신)인 하나(절대)에서 나온 이상한 것, 바른 것, 근본인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한얼님의 씨인 열나이다. 이 열나가 참나임을 인식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삶의 지상(至上)의 목표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은 많은데 열나의 씨를 싹틔운 사람이라고는 몇 안 된다. 열나의 씨를 싹틔운 사람을 이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 이 세

상이 몇 천 년의 역사가 흘렀어도 열나의 씨가 싹튼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참나인 열나를 깨달음이 최후의 승리를 한다는 이것이 아직 그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열명할 제나(몸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세상에 열나가 싹튼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사람들의 열나의 씨가 싹트고 안 트고는 별 문제로 하고 이 사람도 열나의 씨가 싹이 텄는지 안 텄는지 모르겠다. 열나의 씨가 싹이 트는지 모르는 가운데 정신적인 살림이 구차하나 이렇게 사는 것을 나는 자랑하고 싶다.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겠지만 한얼님이 주신 열나의 씨가 맘속에 서 싹이 트는 척만 해도 기쁘기 그지없다. 열나의 씨가 싹튼 사람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찬다면 이 세상이 오늘날처럼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류영모, 『다석어록』)

한얼님이 주시는 열나가 싹이 튼다는 것은 한얼님의 생명인 성령의 뜻이 맘속에서 살아나 한얼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들어준다. 그리하여 한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준다. 한얼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기 때문이다. 한얼님의 뜻이 한얼님 아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사명이 된다. 한얼님의 뜻이 참이 되고 빛이 되고 말씀이 되고 슬기·지혜가 된다.

한얼님의 말씀은 열인 뜻이기 때문에 말없는 말씀이다. 귀의 고막에 울리는 한얼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은 한얼님의 말씀이 아니다. 예수는 “사람이 밥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한얼님의 말씀으로 산다.”(마태 4:4)고 말하였다. 예수는 말없는 침묵의 말씀을 먹은 것이다. 석가가 한얼님을 니르바나님이라고 한 것은 니르바나의 뜻이 적정 寂靜

곧 침묵이기 때문이다. 적멸(寂滅)이라고도 한다. No voice다. 노자(老子)의 불언지교(不言之教)이다. 지금 불교는 불상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석가의 신앙은 니르바나님을 신앙하였다. 불상 없는 적멸보궁이 석가의 신앙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석가가 말한 피안(彼岸, paramita)이 바로 니르바나님이다. 한얼님을 침묵으로 본 소로우는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소리는 침묵의 하인이자 그 자료를 대는 일꾼이다. 침묵은 모든 소리의 주인일 뿐 아니라 열심히 찾아다녀야 그님을 겨우 만나게 되는 귀한 임자이다. 가장 명료하고 뜻 깊은 말 뒤에는 언제나 의미심장한 침묵이 감돈다.”

(소로우, 『소로우의 길』)

말없는 말씀은 바로 프라즈나(prajna) 바라미타(paramita), 곧 피안(彼岸 니르바나님)에 이르는 지혜이다. 류영모는 니르바나님(한얼님)께로 안내하는 말씀을 가장 중요시 하였다.

“말씀밖에 믿을 게 없다. 한얼님의 생명인 말씀만이 영원히 간다. 나는 한얼님의 말씀밖에 아무 것도 안 믿는다. 예수만 한얼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다. 석가도 니르바나님(한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말씀의 임자가 누구인가? 한얼님(니르바나님)의 성령이 말씀의 주인공이다.(마태 10:20) 사람이 날마다 새롭고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한얼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나(ego)는 죽어 한얼님의 열로 눈이 뚫리고, 코가 뚫리고, 입이 뚫리고, 알(知)이 뚫려야 참으로 한얼님 아들인 열나가 영큼

성큼 자라게 된다.

한얼님께서는 고요히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마음에 외치듯 교훈 하신다. 맘속으로 들려오는 한얼님의 말씀은 막지 못한다. 사람이 한얼님 아버지를 그리워함은 막을 길이 없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열로 돌아면서 하나이다.”

(류영모, 『다석어록』)

말씀은 꼭대기인 마루(宗)로부터 받아서 쓰는 것이 한얼님의 말씀이다. ☺

「진리의 벗이되어」 협찬 구독 안내

구독료 1년 2만원 (해외 3만원)

* 은행 계좌 이체

우리은행 160-04-116387

농협 083-17-003796

예금주 : 성천문화재단

* 선물용

받으실 분의 성함과 주소, 연락처를 편집실(02-786-1754)로 알려주시면, 보내시는 분의 성함을 기재하여 우송해 드립니다.

*** 성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